

상습범죄인이 출소하여 살아가는 과정

최 옥 채*

I. 문제제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상습범죄인의 인권과 교정시설 내 처우와 관련하여 사회보호법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한겨레, 2003년 8월 12-19일자), 마침내 정부는 상습범죄인 피보호감호자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사회보호법을 조만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한겨레, 2003년 9월 18일자). 상습범죄인을 다루는 사회보호법에 대한 이 같은 사회적 논의는 궁극적으로 상습범죄인을 처벌하는 제도와 교정시설 내 처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이형국, 1994; 김종정, 1998; 송문호, 2001)나 개인의 경험 사례(한겨레, 2003년 6월 17일자)에서 사회보호법이 상습범죄인의 재화에 문제라고 제기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학계를 포함하여 어떤 분야에서도 이 법의 존폐 여부를 떠나 상습범죄인의 지역사회 내 재화를 강조한 연구는 없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상습범죄인에 관한 연구는 이형국(1994)과 송문호(2001)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습범죄에 대한 대책, 김종정(1998)과 이상현(2000)이 각각 상습범죄인의 교정시설 내 처우와 상습범죄인의 심리에 관한 연구에 불과하다. 이들 연구는 상습범죄 관련 제도와 상습범죄인에 대한 처벌·처우와 상습범죄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상습범죄인을 처벌·처우하는 제도와 교정시설의 운영에 중점을 둬으로써 출소한 상습범죄인을 위한 재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인의 재화는 범죄인과 관련하여 있는 제도와 교정시설 내의 프로그램과 출소 후 지원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더욱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최옥채, 2003; 조기룡, 1999). 예컨대 범죄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처우를 위한 제도가 운용되고, 교정시설 내에서 범죄인의 교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범죄인이 출소했을 때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나 개인의 관심과 도움이 있어야 범죄인의 재화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들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앞에서 살펴본 논의와 선행연구는 상습범죄인에 대한 처벌과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만 초점을 두었고 상습범죄인의 출소 후 생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수감중인 상습범죄인을 대대적으로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조교수

출소시키고, 나아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려는 상황을 고려하면 상습범죄인을 위한 지역사회 내 재활 방안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연구는 출소한 상습범죄인의 재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상습범죄인이 출소하여 살아가는 과정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상습범죄 경력자와 출소한 상습범죄 경력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근거이론방법에 의해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상습범죄인의 삶을 연구함으로써 상습범죄인을 위한 지역사회 내 재활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이 연구와 관련하고 있는 주요 개념으로 상습범죄와 상습범죄인과 상습범죄인의 출소 후 생활에 관하여 정리하고, 상습범죄인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상습범죄와 상습범죄인

상습범죄(常習犯罪, habitual crime)란 일정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에 따로 규정하지 않지만 특정 범죄에 관여하는 형벌가중의 원인이 된다(동서문화, 1999:7870). 상습범죄는 생활방식의 일부로서 절도, 강도, 밤도둑 등을 말하고, 대부분 비행청소년 집단 성원이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조직화하여 범죄를 하거나 전문적으로 범죄만을 행하는 사람들만큼 범죄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부분적으로 범죄생활에 빠져있기 때문에 '준전문적 범죄인'으로도 불린다(양춘 외, 1999:215-216).

한편 형법은 누범(累犯, repeated offence)을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상습범죄와 구별되어야 한다.¹⁾ 예컨대 누범은 전과의 존재와 범행빈도라는 단순한 법률상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되는 반면 상습범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소와 징표들로서는 사회적·교육적 결손상태, 조기범행, 범죄전력, 직업적 범행 여부, 노동협오와 같은 성격장애 등을 들 수 있다(송문호, 2001:190). 따라서 상습범죄는 범죄행위가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고 내부적인 성격 요소가 우월한 고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이상현, 2000:37).

우리나라의 상습범죄 현황은 범죄인의 범죄횟수와 피보호감호자의 범죄횟수를 기초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먼저 소년범죄인의 범죄횟수는 1996년 이후 5년간 4회 이상이 3.0%에서 7.0%로 증가했고, 1991년 이후 10년간 6-7회가 29.6%에서 33.6%로 가장 높게 증가했으며, 10

1) 그럼에도 상습범죄와 누범의 개념이 불확실하고(송문호, 2001:190), 누범이 범죄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상습범죄와 유사하고(지광준, 2001:47), 특히 이 연구가 범죄를 반복하는 범죄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습범죄에 누범을 포함하고자 한다.

회 이상은 평균 14.0%로 나타났다(법무연수원, 2001).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 검거된 전체 범죄인의 63%가 재범이었고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가 19.8%로 나타났다(경찰청, 2003:215). 또한 수용중인 성인 피보호감호자는 2002년 말 현재 6·7회가 전체 수용자의 36.8%로 가장 많았고, 4·5회를 합치면 64.0%에 달하였다(한겨레, 2003년 8월 12일자). 한편 2003년 8월 말 현재 전체 피보호감호자 1,557명 중 절도가 77.0%, 강력범죄가 10.0%, 폭력이 6.0%, 사기 등이 4.0%, 성폭력이 3.0%로 조사되었다(한겨레, 2003년 8월 12일자).

우리나라의 상습범죄인은 대체로 생계가 어려워 범죄에 가담하고, 이들 상습범죄인은 성격적 소질로 인해 얻어진 내적 성벽 때문에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지광준, 2001:47). 또한 중국의 儲槐植(1993:239-240)은 상습범죄인의 특성으로 범죄경력의 다수, 뿌리 깊은 범죄에의 악습, 성인에의 집중, 가족관계의 문제, 낮은 교육수준, 장기간의 형기를 들었다.

2. 상습범죄인의 출소 후 생활

상습범죄인의 출소 후 생활은 이들이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심사에서 적격자로 판정 받고 교정시설에서 나와 꾸려 가는 삶을 일컫는다. 상습범죄인은 가출소 판정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출소하여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거나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생활관에서 일시 거주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출소 후 새 가정을 만들어 독립하여 살기도 하고, 출소자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인가 또는 미인가 시설에서 생활한다. 법무부 교정국(2003) 자료에 의하면 민간 시설은 2003년 7월 말 현재 인가와 미인가 시설이 각각 다섯 곳으로 총 열 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의 규모는 적게는 3·4명에서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3. 상습범죄인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는 상습범죄인과 관련하여 이형국(1994)과 송문호(2001)가 상습범죄의 대책으로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 연구했고, 김종정(1998)과 이상현(2000)이 각각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시설 내 처우와 상습범죄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형국은 우리나라는 상습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중형주의(重刑主義)를 내세우면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감호처분을 행한다고 강조하였고, 상습범죄인의 상당수가 성격적 약점을 지닌 사람이므로 그 약점을 보완·교정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송문호는 상습범죄에 대한 대책의 문제점으로 상습범죄인에게 주어지는 가중처벌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압에 의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관점을 포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종정은 교정시설의 교도관과 피보호감호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내 처우의 개선방안으로 시설의 개방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피보호감호자 가족에게 배려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현은 상습범죄인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상습범죄인은 심리적으로 이기주의와 말세주의 성향과 주변인에 대한 불신감이 강하여 절도를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에서는 儲槐植(1993)이 중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상습범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격한 관리, 정(情)을 통한 변화 유도, 개별 접근 등과 같은 교정방안을 제시하였다. Athanson(1997)은 상습범죄 경력자에 관한 기존 연구들로부터 얻은 2차 자료를 분석하여 고위험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폭력 범죄에 상습화함을 강조하였다. DeLisi(2000)는 무작위로 선정한 범죄 경력자 500명 집단과 30회 이상 검거 경험이 있는 범죄 경력자 500명 집단을 비교 분석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성인기보다는 청소년기에 범죄를 시작한 경우가 더욱 심한 범죄에 상습적으로 가담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Maruna(2001:100-101)는 상습범죄인에게 12단계 프로그램을 적용한 경험을 기초로 상습범죄인의 변화 동기는 이들이 행한 범죄가 잘못되었다는 지각이나 지식보다는 일상 삶에 대한 감각과 개인적인 재할 방안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상습범죄인에 대한 처벌·처우에 따른 제도와 교정시설 내에서의 대처방안과 출소 후 재할 방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상습범죄인의 출소 후 재할 방안에 관한 연구는 외국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고 국내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앞의 문체계기에서 언급한 바처럼 상습범죄인의 온전한 재할을 위해 적절한 처벌과 교정시설에서의 합당한 교정방안도 중요하지만 출소한 상습범죄 경력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상습범죄인에 관한 기존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상습범죄인의 출소 후 삶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근거이론방법

근거이론방법은 상징적 상호작용론²⁾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이 방법은 인간은 사물의 의미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사물이 지닌 의미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형성·변형·유지되고, 인간은 해석 과정을 통해 의미를 처리·변형한다는 철학적 배경에 근거하여 인간 행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본질을 파악하고 개념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김춘미, 2001:18-19 재 인용 정리). 따라서 근거이론방법은 상습범죄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서로 작용하

2)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은 자신 주변 세계의 모든 측면을 지시할 상징을 창출·사용하며 사회가 행위자들 간 상징적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된다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같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대표 이론가로 미드(George Herbert Mead)와 블루머(Herbert Blumer)를 들 수 있다. 즉 미드가 실용주의와 다윈이즘과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상호작용론의 기틀을 마련한 후 블루머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발전시켰다(Turner, 2002:431-478 요약 정리).

면서 대처해나가는 경험에 집중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상습범죄인의 출소 후 삶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스트라우스(A. Strauss)와 코빈(J. 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이 방법을 충실히 적용한 김미연(2003)의 연구 과정을 참고하여 진행할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인위적으로 표집하되 상습범죄 경력이 있거나 상습범죄인을 위해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들과 심층면접을 통해 상습범죄인의 출소 후 생활에 관한 자료가 포화할 때까지 수집할 것이다. 자료분석은 개방코딩과 축코딩과 선택코딩 과정을 거쳐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2.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이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한 후 일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전체 연구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는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제시한 네 가지 기준(김미연, 2003:161-162 재인용), 즉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발견한 이론, 연구과정, 연구에 관한 경험적 근거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3. 연구자의 윤리적 관점

먼저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전화로 면접을 허락받은 후 면접 일정을 약속하고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만나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범죄인을 위한 연구자의 연구와 활동 경력을 이야기하면서 연구참여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연구참여자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려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동안 연구참여자들이 이 연구의 의도에 불만을 갖거나 계속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이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놓을 것이다. 물론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허락 아래 면접 내용을 녹음할 것이다.

IV.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와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과정의 특성

연구자는 이 연구를 위해 연구참여자 다섯 명과 2003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면접하였다. 전체 연구참여자 중 두 명은 각각 13년과 21년 동안 교정시설 내 상습범죄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출소한 상습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나머지 3명은 상습범죄 경력

자로 상습범죄인을 위한 교정시설을 출소한 후 어려운 적응과정을 거쳐 과거의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상습범죄인의 재활을 지원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서울, 경북 청송, 강원 횡성에 거주했으며, 이들의 나이는 40세에서 64세까지였고, 이들은 상습범죄인을 위한 활동 외에 직업적 활동으로 목회, 가축병원 운영, 출소자를 위한 시설 운영에 전념하였다.

최초로 면접했던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지지했던 한국교정복지전문학교 임원들의 소개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네 명을 선정하는 과정은 최초 연구참여자가 두 번째 연구참여자를 소개하고 두 번째 연구참여자가 세 번째 연구참여자를 권하는 눈덩이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 것은 출소한 상습범죄인의 삶을 충분히 경험한 자를 연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였다.

자료는 연구참여자 다섯 명을 면접한 내용, 상습범죄인 관련 공무원과 면접한 내용, 연구참여자가 출판한 서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집했으나 연구참여자와의 면접 내용이 중심 자료가 되었다. 첫 연구참여자 면접한 자료는 개방코딩 위주로 분석했고, 두 번째 연구참여자부터 면접해 얻은 자료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다섯 번째 연구참여자부터 면접해 얻은 자료가 포화했음을 알았고, 이 연구참여자 역시 앞서 면접에 응했던 연구참여자 네 명의 이름을 확인하고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연구자는 다섯 번째 연구참여자를 면접한 후 새로운 연구참여자 만나 것을 중단하였다. 실제로 첫 번째 연구참여자와의 면접에서 녹음한 시간은 약 90분이었으나 다음 연구참여자로 넘어갈수록 녹음 시간은 줄어들었고, 다섯 번째 연구참여자와는 약 30분 녹음하였다.

한편 연구자는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활동 상황과 이들이 면접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만나거나 전화로 보완·확인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중 두 명은 이 분야에서 널리 활동하고 있어 이미 이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연구자 자의로 접촉하지 않고 전(前) 연구참여자의 권유에 따라 순차적으로 면접하였다. 아울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중 두 명이 출판한 자서전적 서적 세 권을 구입하여 자료분석에 활용했다. 연구자가 직접 분석한 내용은 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대학원생과 시종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료분석의 정교화를 꾀하였다.

2. 개방코딩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개방코딩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비롯하여 116개 개념이, '가출소 판정받음'을 포함하여 30개 하위범주가, '출소'와 함께 1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1> 개념 추출과 범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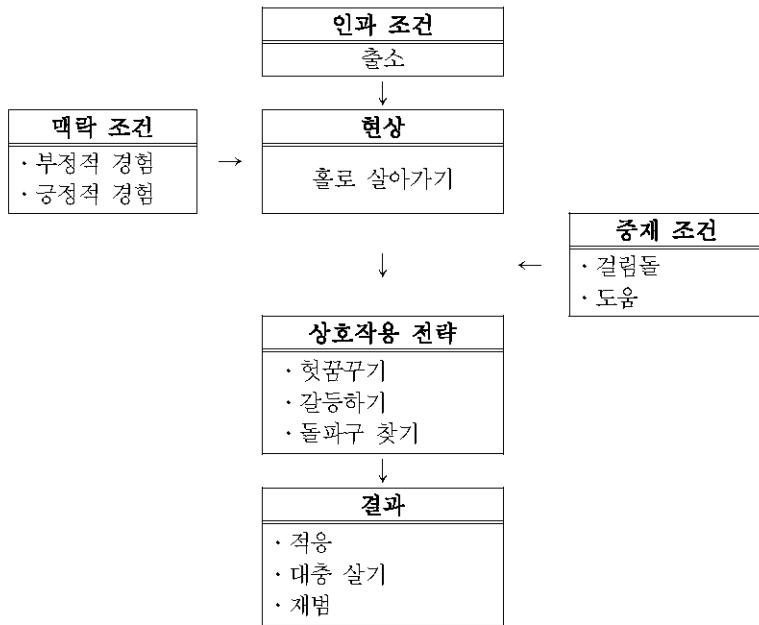
개 념	하위범주	범주	속성/차원
자격증 취득, 취업보증서 제출, 신원보증서 제출, 결연자와 면담, 직원과 면담	가출소 판정 받음	출소	<과정> 실질적/형식적
서두름, 빨리빨리, 잃어버린 시간, 한탕주의	조급함	홀로 살아가기	<정도> 심함/약함
반겨주는 사람 없음, 쉽게 발붙일 곳이 없음, 밀림 속으로 떨어짐	암담함		
금융생활에서 해방, 구속에서 풀림	해방감		
과거 회상, 우쭐함	기대감		
거미줄에 걸린 하루살이, 경찰의 고가 접수	사회 부정의	부정적 경험	<정도> 많음/적음
남의 눈치, 사회인의 편견, 낙인된 처우, 전과자는 전과자	낙인		
날품팔이, 지하철 노점상, 분하고 억울함, 쉽게 도움 받지 못함, 받아주지 않음, 자영업	냉대		
시설의 도움, 후원자의 도움	도움	긍정적 경험	<정도> 많음/적음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함, 잘나에 바뀌는 세상	변화된 현실	걸림돌	<정도> 심함/약함
방황, 악습, 나쁜 언어, 전과도 대물림, 부도덕함, 어디를 가도 표가 남, 사생아 처럼 살음, 영적으로 병들음, 조금만 힘들면 범죄 생각, 자제력 상실, 앞을 내다 보지 못함	범죄 습성		
메사가 부정적, 비뚤어진 눈으로 봄, 나는 범죄인, 고향도 친구도 버림, 의심하는 생활, 부정적 방어수단	부정적 사고		
결손가정, 가정파괴, 가정불화, 가정의 하위문화	열악한 가정환경		
발뺏고 잘 곳이 없음, 기댈 곳이 없음, 주거부정	무연고		
형님 같은 지주, 비밀 언덕, 매개인, 사랑 받는 관계,	지지		
취업, 안정된 거점	생활 터전 제공		

보상 기대, 환영해줄 것으로 기대, 현실을 제대로 못 봄, 포장된 계획	허황	헛꿈꾸기	<정도> 심함/약함 <시간> 지속적/일시적
잘 보이려함, 인정받기 위한 가식적 행동, 생존수단으로 거짓말	가식		
술집 여자, 윤락가 여성, 방패막이, 다른 범죄인과 교류, 끼리끼리 어울림, 모여서 범죄 생각과 계획	어울림	갈등하기	<정도> 심함/약함 <시간> 지속적/일시적
먼저 여자를 찾음, 인적 사항 리스트, 이익 된 것에 우선, 빠른 계산	잇속 차림		
사는 방안 모색, 삶을 위한 고민	고민		
허벅지를 꼬집음, 재기를 위한 노력, 뼈를 깎는 노력, 체질 개선, 늘 징역사는 마음	노력	돌파구 찾기	<정도> 심함/약함 <시간> 지속적/일시적
영적인 치유 기대, 종교에 의지	의지		
가족을 이룸, 시설에 의지, 신앙으로 살아감	안정	적응	
도와준 사람에게 보답함, 정성에 감사함	보답		
자기 틀에서 만족, 맘을 홀리지 않음, 쉬운 일만 함, 발전 없는 시행착오, 진전이 없음	적당주의	대충 살기	
책임지려 하지 않음, 잘못을 모름, 눈치보지 않음, 네 것도 내 것, 삶의 목표가 없음	무책임		
적응을 못함, 자생 능력이 부족함	적응력 부족	재범	
당장 결말 기대, 마음대로 몸이 안 따름, 생각처럼 잘 안됨, 생각과 현실 불일치	기대차이		
모든 것 포기, 가능성을 제시 못함, 쓸모 없는 사람으로 인정, 의욕 없는 삶, 마음잡고 살기 힘들음, 거대한 벽	체념		

3. 축코딩

1) 페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

개방코딩에서 드러난 열두 개 범주를 페러다임 모형에 의해 분석한 결과 인과 조건, 맥락 조건, 현상, 중재 조건, 상호작용 전략, 결과가 <그림 1>과 같이 드러났다.



<그림 1> 상습범죄인의 출소 후 살아가는 과정의 패러다임 모형

(1) 인과 조건

교정시설로부터 '출소'가 상습범죄인이 출소하여 살아가는 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 조건으로 드러났다. '출소'의 하위범주는 '가출소 판정 받음'이었고, 속성과 차원은 각각 과정과 실질적/형식적으로 범주화되었다.

(2) 현상

현상은 출소한 상습범죄인이 맥락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홀로 살아가기'로 나타났고, '조급함', '암담함', '해방감', '기대감'과 같은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홀로 살아가기'는 정도라는 속성과 심함/약함이라는 차원으로 범주화되었다.

(3) 맥락 조건

상습범죄인이 출소하여 영향받는 맥락 조건의 범주는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으로 드러났고, '부정적 경험'의 하위범주는 '사회 부정의', '낙인', '냉대'로, '긍정적 경험'의 하위범주는 '도움'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속성과 차원은 각각 정도와 많음/적음으로 범주화되었다.

(4) 중재 조건

출소한 상습범죄인이 살아가면서 펼치는 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조건을 구성한 범주는 '걸림돌'과 '도움'이었다. '걸림돌'의 하위범주는 '변화된 현실', '범죄 습성', '부정

적 사고', '열악한 가정환경', '무연고'로, '도움'은 '지지'와 '생활 터전 제공'으로 구성되었다. '결림돌'의 속성은 정도로 차원은 심함/약함이었고, '도움'의 속성은 시간으로 차원은 지속적/일시적이었다.

(5) 상호작용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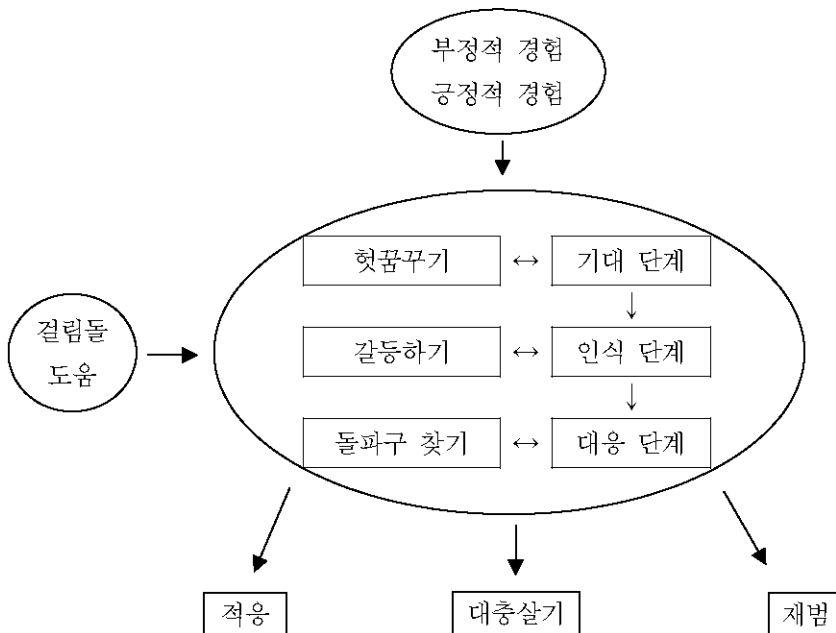
상습범죄인이 출소하여 살아가는 과정에서 구사하는 상호작용 전략은 '헛꿈꾸기', '갈등하기', '돌파구 찾기'와 같은 범주로 구성되었다. 이들 세 범주의 범주화는 정도와 시간이라는 속성에 의해 심함/약함과 지속적/일시적이라는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6) 결과

출소한 상습범죄인들의 현상인 '홀로 살아가기'는 맥락 조건인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 중재 조건인 '결림돌'과 '도움', 상호작용 전략인 '헛꿈꾸기'와 '갈등하기'와 '돌파구 찾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응', '대충 살기', '재범'으로 드러났다.

2) 과정 분석

상습범죄인이 교정시설에서 나와 상호작용 전략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구체화하면 <그림 2>처럼 기대 단계, 인식 단계, 대응 단계로 이루어짐이 드러났다.



<그림 2> 상습범죄인의 출소 후 삶 과정

(1) 기대 단계

기대 단계는 상습범죄인이 자신의 삶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 출소하여 여러 사람들과부터 환영받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현실을 제대로 못 보면서 허황됨을 보인다. 또한 남들에게 잘 보이거나 인정받기 위해 가식적으로 행동한다. 물론 상습범죄인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통해 범죄인에 대해 개인이나 사회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교정시설에서 나온 직후에는 '조급함', '암담함', '해방감', '기대감' 속에서 교정시설에서 보낸 지난 시절을 짧은 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허황'과 '가식'에 의한 '헛꿈꾸기'라는 전략을 구사한다.

(2) 인식 단계

인식 단계는 상습범죄인이 살아가면서 중재 조건인 '걸림돌'과 '도움'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만만치 않은 현실을 '어울림'과 '잇속 차림'과 '고민'을 통해 알아 가는 과정이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상습범죄인은 기대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쉽게 보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황이나 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갈등하기'라는 전략을 펼치면서 깨닫는다. 예컨대 상습범죄인은 교정시설에서 나와 끼리끼리 어울리거나 빠른 계산에 의해 살고 참된 삶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갈등한다.

(3) 대응 단계

대응 단계는 출소한 상습범죄인이 갈등상황을 거친 뒤 만만치 않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상습범죄인은 뼈를 깎는 노력이나 늘 징역사는 마음으로 체질을 개선하거나 종교에 의지하면서 '돌파구 찾기'라는 전략을 구사한다.

4. 선택코딩

1) 핵심범주

가출소 판정을 받고 교정시설에서 나온 상습범죄인은 한 편으로는 조급하고 암담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해방감과 기대감 속에서 홀로 살아가기를 시작한다. 이때 출소한 상습범죄인의 생활에 이들의 과거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출소한 상습범죄인은 개인적·사회적 걸림돌과 관계적·생활적 도움 속에서 세 가지 전략을 펼치며 살아간다. 즉 출소한 상습범죄인은 처음에 허황과 가식으로 '헛꿈꾸기'라는 전략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어울림과 잇속 차림과 고민으로 '갈등하기'라는 전략을 펼치고, 끝으로 자신의 노력과 종교에 의지하면서 '돌파구 찾기'라는 전략을 구사한다.

한편 상습범죄인은 출소하여 살아가면서 안정된 삶을 꾸리거나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가 하면, 적당주의와 무책임으로 범망에 걸리지 않고 대중 살아가기도 하고, 적응력이 부족하거나 체념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결국 출소한 상습범죄인이 살아가는 전체 과정의 핵심범주는 '자신의 경험을 안고 걸림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로 요약할 수 있다.

2) 이야기 윤곽 전개

이야기 윤곽 전개를 통해 출소한 상습범죄인의 삶을 요약한 핵심범주를 열두 개 범주와 아우르면서 분석과정을 정교화할 수 있다. 즉 핵심범주인 '자신의 경험을 안고 걸림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를 범주들과 연관시켜 정리함으로써 상습범죄인이 출소하여 살아가는 과정을 다듬거나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상습범죄인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기 위해 가출소 판정을 받는 과정은 상습범죄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미처 못하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가출소 판정을 받기 위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취업보증서와 신원보증서가 실제로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준비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소한 상습범죄인은 조급함, 암담함, 해방감, 기대감 속에서 홀로 살아가기를 시작한다. 이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한탕주의에 빠지려 하거나 모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이들은 사회로 나온 것이 마치 밀림 속으로 떨어진 듯한 암담한 심정을 경험한다. 그런가 하면 방금 출소한 상습범죄인은 금욕생활이나 구속으로부터 해방감과 우쭐한 기분 속에서 기대감을 일시적으로 갖기도 한다.

출소한 상습범죄인의 홀로 살아가기에는 사회 부정의와 낙인과 냉대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상습범죄인은 거미줄에 걸린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했던 경험, 전과자라는 낙인을 받고 살았던 경험, 날뎠팔이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야 했던 경험, 시설이나 후원자로부터 도움 받았던 경험에 의해 이들의 출소 후 삶은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 속에서 출소한 상습범죄인은 몸부림치는 삶을 시작한다.

출소한 상습범죄인이 상호작용 전략을 구사하며 살아가는 과정에 변화된 현실, 상습범죄인이 가지고 있는 범죄 습성, 부정적 방어수단, 이들 가정의 하위문화, 불분명한 거주지 등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한편 출소한 상습범죄인이 비빌 언덕이나 취업과 안정된 거점 마련은 도움으로 작용한다. 출소한 상습범죄인은 이렇게 걸림돌과 도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한편 상습범죄인의 '자신의 경험을 안고 걸림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는 상호작용 전략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상습범죄인은 출소하자마자 일시적인 해방감과 기대감 속에서 허황과 가식을 통해 '헛꿈꾸기'를 하고, 다음으로 이들은 주변인과 어울리고 자기 잇속을 차리며 삶을 고민하면서 '갈등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노력하고 종교에 의지하면서 삶의 한 방편으로 '돌파구 찾기'를 한다.

결국 출소한 상습범죄인의 '자신의 경험을 안고 걸림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는 사회

에 적응하여 새로운 삶을 꾸리거나 잔잔한 일탈행위를 하면서 범망에 걸리지 않고 대충 살거나 다시 범죄에 빠져 교정시설로 돌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3) 가설적 정형화 관계진술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맥락 조건과 중재 조건을 형성하는 범주가 지니는 속성의 차원에 따라 핵심범주와 맥락·중재 조건의 가설적 관계유형을 조합하면 <표 2>처럼 열여섯 가지가 가능하나 이를 다시 면접자료와 대조하여 여덟 개로 결정되었다.

<표 2> '자신의 경험을 안고 걸림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의 가설적 정형화

맥락 조건	맥락 조건	중재 조건	중재 조건	가설적 정형화
부정적 경험	긍정적 경험	걸림돌	도움	
많음	많음	심함	지속적	(1)
			일시적	
	적음	심함	지속적	(3)
			일시적	
	적음	약함	지속적	(4)
			일시적	
적음	많음	심함	지속적	(5)
			일시적	
	적음	심함	지속적	(7)
			일시적	
	적음	약함	지속적	(8)
			일시적	

- (1)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이 많고 걸림돌이 심하고 도움이 일시적인 '자신의 경험을 안고 걸림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
- (2)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이 많고 걸림돌이 약하고 도움이 지속적인 '자신의 경험을 안고 걸림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
- (3) 부정적 경험이 많고 긍정적 경험이 적고 걸림돌이 심하고 도움이 일시적인 '자신의 경험을 안고 걸림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
- (4) 부정적 경험이 많고 긍정적 경험이 적고 걸림돌이 약하고 도움이 지속적인 '자신의 경

- 험을 안고 결립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
- (5) 부정적 경험이 적고 긍정적 경험이 많고 결립돌이 심하고 도움이 일시적인 '자신의 경험을 안고 결립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
 - (6) 부정적 경험이 적고 긍정적 경험이 많고 결립돌이 약하고 도움이 지속적인 '자신의 경험을 안고 결립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
 - (7)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이 적고 결립돌이 심하고 도움이 일시적인 '자신의 경험을 안고 결립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
 - (8)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이 적고 결립돌이 약하고 도움이 지속적인 '자신의 경험을 안고 결립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

이렇게 정형화한 것을 각각 전체 자료와 대조하여 관계진술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이 많고 결립돌이 심하고 도움이 일시적인 '자신의 경험을 안고 결립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는 헛꿈꾸기와 갈등하기와 돌파구 찾기를 하나 기대차이를 느끼면서 적용하는 데 어려울 것이다.
- (2)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이 많고 결립돌이 약하고 도움이 지속적인 '자신의 경험을 안고 결립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는 헛꿈꾸기와 갈등하기와 돌파구 찾기를 통해 적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 (3) 부정적 경험이 많고 긍정적 경험이 적고 결립돌이 심하고 도움이 일시적인 '자신의 경험을 안고 결립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는 헛꿈꾸기와 갈등하기와 돌파구 찾기를 하면서 체념하며 살아갈 것이다.
- (4) 부정적 경험이 많고 긍정적 경험이 적고 결립돌이 약하고 도움이 지속적인 '자신의 경험을 안고 결립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는 헛꿈꾸기와 갈등하기와 돌파구 찾기를 통해 적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 (5) 부정적 경험이 적고 긍정적 경험이 많고 결립돌이 심하고 도움이 일시적인 '자신의 경험을 안고 결립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는 헛꿈꾸기와 갈등하기와 돌파구 찾기를 하면서 무책임하게 살아갈 것이다.
- (6) 부정적 경험이 적고 긍정적 경험이 많고 결립돌이 약하고 도움이 지속적인 '자신의 경험을 안고 결립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는 헛꿈꾸기와 갈등하기와 돌파구 찾기를 하면서 안정되게 살아갈 것이다.
- (7)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이 적고 결립돌이 심하고 도움이 일시적인 '자신의 경험을 안고 결립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는 헛꿈꾸기와 갈등하기와 돌파구 찾기를 하지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8)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이 적고 결립돌이 약하고 도움이 지속적인 '자신의 경험을 안고 결립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는 헛꿈꾸기와 갈등하기와 돌파구 찾기를 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4) 유형분석

가설적 정형화와 관계진술문을 반복하여 정리하고, 이들 자료와 연구참여자의 사색과 견주어본 결과 '자신의 경험을 안고 걸림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는 <표 3>에서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드러났다.

<표 3> '자신의 경험을 안고 걸림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기' 유형

패러다임 \ 유형	적응형	대충 살기형	재범형
인과 조건	출소 (실질적)	출소 (형식적)	출소 (형식적)
현상	홀로 살아가기 (약함)	홀로 살아가기 (심함)	홀로 살아가기 (심함)
맥락 조건	부정적 경험 (적음) 긍정적 경험 (많음)	부정적 경험 (많음) 긍정적 경험 (적음)	부정적 경험 (많음) 긍정적 경험 (적음)
중재 조건	걸림돌 (약함) 도움 (지속적)	걸림돌 (심함) 도움 (지속적)	걸림돌 (심함) 도움 (일시적)
상호작용 전략	헛꿈꾸기 (약함, 일시적) 갈등하기 (약함, 일시적) 돌파구 찾기 (심함, 지속적)	헛꿈꾸기 (약함, 지속적) 갈등하기 (약함, 지속적) 돌파구 찾기 (약함, 일시적)	헛꿈꾸기 (강함, 지속적) 갈등하기 (강함, 지속적) 돌파구 찾기 (약함, 일시적)
결과	안정된 생활과 보답하는 마음으로 적응하며 몸부림침	적당주의와 무책임으로 대충 살며 몸부림침	적응력 부족과 기대차이와 체념으로 범행하면서 몸부림침

(1) 적응형

적응형은 교정시설에서 실질적인 가출소 판정 과정을 거쳐 나와 정도가 약한 상태에서 홀로 살아간다. 이 유형은 부정적 경험은 적게 하고 긍정적 경험을 많이 한 경우이고, 걸림돌의 정도가 약하고 시설이나 개인으로부터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상호작용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적응형은 헛꿈꾸기를 약하고 일시적으로, 갈등하기는 약하고 일시적으로, 돌파구 찾기는 심하고 지속적으로 한다. 끝으로 적응형은 안정된 생활과 자기한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산다. 이 유형에는 두 번째와 네 번째 연구참여자가 속한다.

두 번째 연구참여자는 지난 20여 년간 2,000명이 넘는 상습범죄인을 도우면서 세 가지 유형을 모두 경험하였다. 특히 이 연구참여자는 소매치기를 끊지 못하고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20년 넘게 생활하고 출소한 한 상습범죄인을 출소 전부터 출소하여 기반을 잡을 때까지 도와 주었다. 두 사람은 현재까지 교류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예컨대 상습범죄인이 IMF 시기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장사하던 중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구참여자는 그 상습범죄인의 병원비를 내주었고, 얼마 후 연구참여자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상습범죄인은 병원비 일부와 쌀을 가져왔다. 가족이 없는 그 상습범죄인은 출소하여 건강을 해쳐가며 공장에서 일했고, 힘들 때 연구참여자의 지지를 받으며 범죄와 손을 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동네 일을 맡아 성실하게 살고 있다.

네 번째 연구참여자는 20세에 처음 범죄를 저지른 후 이후 10여 년간 수형생활을 마치고 최종 출소하여 가족과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활에 성공하였다. 이 연구참여자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곧바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자원봉사자로서 기도원 일을 도우며 범죄와 단절된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이후 출소자를 위한 기관에 취업하여 생활 터전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상습범죄인을 위해 활동하면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2) 대충 살기형

대충 살기형은 교정시설에서 형식적인 가출소 판정 과정을 거치고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홀로 살아간다. 이 유형은 출소 후 생활을 위해 실질적인 면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출소하기 위해 수단으로 서류를 갖추어 가출소 적격 판정을 받는 데 열중한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 경험이 많은 반면 긍정적 경험이 약하고, 걸림돌의 정도가 심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이 유형이 펼치는 전략은 약하고 지속적으로 헛꿈꾸기와 갈등하기를 하고, 약하고 일시적으로 돌파구 찾기를 한다. 대충 살기형은 법을 잘 지키며 성실하게 살기보다는 적당히 법을 어기되 범죄에는 빠지지 않으면서 돌파구를 찾는다. 이 유형에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연구참여자가 해당된다.

첫 번째 연구참여자는 상습범죄인을 13년간 돕고 있다. 이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아들이 비행과 범죄로 20여 년간 소년원과 교도소를 전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 상습범죄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아들의 동료 상습범죄인들과도 교류하면서 상습범죄인의 삶을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참여자가 언급하는 상습범죄인들은 출소 후에 법을 위반하는 사례였다. 이들 상습범죄인은 범죄로 몰려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여전히 범죄의 습성으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한 처지였다. 예컨대 이들은 무적 차량을 상시 운행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물건을 고물로 가져오거나 동료와 노름 등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삼고 있다.

세 번째 연구참여자는 청소년기에 가출하여 잦은 비행과 범죄로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10여 년간 생활한 후 30대 중반에 출소하여 종교단체의 도움으로 현재는 출소한 상습범죄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참여자는 현재 잘 적응하여 살고 있지만 30대 중반까지는 잔잔한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면서 경찰에 걸려들지 않아 대충 살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참여자는 10여 년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상습범죄인은 출소하여 무의식적으

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였다.

(3) 재범형

재범형 역시 교정시설에서 받은 가출소 심사 과정을 형식적으로 거치고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홀로 살아간다. 특히 이 유형은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한 반면 긍정적 경험은 적게 하였다. 이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의 정도는 심하고 도움은 일시적이다. 이 유형은 헛꿈꾸기와 갈등하기가 강하면서 지속적이고, 돌파구 찾기는 약하고 일시적으로 진행된다. 끝내 재범형은 적응력 부족과 기대차이와 체념으로 범행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이 유형에는 다섯 번째 연구참여자가 해당된다.

다섯 번째 연구참여자는 청소년기에 가출하여 비행과 범죄에 젖어들었고, 상습범죄인을 수용하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범죄에 손을 끊지 못하고 약 1년만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감되었다. 물론 이 연구참여자는 상습범죄인을 위한 교정시설을 두 번째 출소한 이후 현재 잘 적응하고 있으나 늘 징역사는 마음으로 긴장하며 살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참여자는 “근로보상금 이십만 원을 받아들이고 보호감호소(상습범죄인을 위한 교정시설)를 출소할 때는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에 가득 찼는데 막상 서울에 와보니 갈 곳은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다”(이동우, 2000:83)고 하면서 “그래, 이젠 어쩔 수 없는 거야. 난들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야. 단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야. 이젠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의 잘못이야”(이동우, 2000:55)하며 다시 범행하였다.

5) 상황모형

교정시설에서 나온 상습범죄인은 개인, 조직, 사회 수준에서 홀로 살아간다. 각 수준에 따른 출소한 상습범죄인의 삶과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수준

상습범죄인은 실질적이거나 형식적 가출소 판정 과정을 거쳐 교정시설에서 나와 홀로 살아간다. 그런 중에 이들은 조급함, 암담함, 해방감, 기대감을 개인 수준에서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 상습범죄인들은 어려서부터 익숙해진 범죄 습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 이런 몸부림침에는 매사를 부정적이고 비뚤어진 눈으로 보려는 부정적 사고가 함께 한다. 특히 이들은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전략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허황과 가식으로 헛꿈꾸기를 한다. 또한 사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삶을 위한 고민에 빠지고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돌파구를 찾는다.

(2) 조직 수준

상습범죄인은 열악한 가정환경과 무연고 상태에서 출소하여 여타 가족이나 단체에 의존하

려 한다. 앞에서 언급한 개인 수준의 부정적 사고가 사람을 만나면서 조직 수준에서 발휘된다. 한편 주변인들로부터 지지와 생활 터전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조직 수준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상호작용 전략에서도 이들은 술집 여자나 다른 범죄인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잇속 차림에 집중하면서 갈등하기 전략을 펼치며 살아간다. 이런 과정에서 출소한 상습범죄인들은 가정을 이루거나 취업하거나 안정된 거점을 마련한다. 변화된 현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홀로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잇속을 차린다. 이런 어울림과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 헛된 기대가 아닌 실제로 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고민하며 뼈를 깎는 노력과 종교단체에 의지하며 돌파구를 찾아나간다.

(3) 사회 수준

상습범죄인은 일정하게 주거할 곳이 없거나 쉽게 발붙일 곳이 없어 무연고 상태에서 교정시설에서 나온다. 특히 이들은 거미줄에 걸린 하루살이나 경찰의 진급을 위한 희생양처럼 사회의 부정의 속에서 차별받으며 살아간다. 이런 삶에서 상습범죄인들은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할 정도로 변화해버린 사회환경과 남의 눈치를 보거나 지하철했 노점상과 같은 일에 전념해야 하는 사회의 냉대 속에서 홀로 살아간다. 결국 사회의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하고 체념하며 돌파구를 찾아나가는가 하면 종교단체와 교류하거나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6) 평가

이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제시한 네 가지(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발견한 이론, 연구과정, 연구에 관한 경험적 근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자 한다. 이들 평가기준은 독립하여 적용되기보다는 서로 관련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들 평가기준을 함께 아울러 이 연구의 전체 과정과 도출된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상습범죄인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살아가는 과정을 밝히는 데 합당한 자료수집을 위해 상습범죄인을 돕는 활동가와 상습범죄인을 수소문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상습범죄인을 도왔던 연구참여자들은 다년간 성실한 활동으로 교정계에서 인정받는 자들이었고, 상습범죄 경력자로서 참여했던 연구참여자들은 상습범죄인을 위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들로 상습범죄 경력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상습범죄인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자는 이들 연구참여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상습범죄인의 재화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연구참여자의 추천에 의해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연구참여자를 면접해 얻은 내용, 상습범죄인과 상습범죄인을 위한 교정시설에서 근무한 교정직 공무원이 출판한 서적, 상습범죄인과 관련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공무원과의 면담 내용, 상습범죄 관련 신문기사 등이었다. 이들 자료 중 연구참여자들과 면접한 내용이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고, 서적과 공무원과의 면담 내용은 면담에서 얻은

자료를 보완하거나 분석한 자료를 확인하기 데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상습범죄인의 재화에 정부나 민간의 관심이 필요함을 느끼면서 이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면접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었다.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함께 진행하면서 개방코딩과 축코딩에서 자료의 포화를 확인하여 연구참여자와 면접을 완료하였고, 선택코딩부터 연구참여자와 관련 공무원과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완·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을 면접해 얻어 분석한 자료는 이들이 출판한 서적의 내용과 일치하였다. 오히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청소년기의 생활상, 범행 내용, 술집 여성과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은 면접에서 얻은 것보다 책의 내용이 더욱 적나라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내용을 보완·확인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전화로 문의했다. 개방코딩은 개념의 속성과 차원을 고려하여 상습범죄인이 출소 후 과정을 순서에 따라 분석하였다. 물론 축코딩과 선택코딩 과정에서 개방코딩 내용은 수없이 보완되었다. 특히 선택코딩의 전체 과정, 즉 핵심범주 찾기, 이야기 윤곽을 전개, 가설적 정형화와 관계진술문 정리, 유형분석뿐 아니라 이후 상황모형 제시와 평가 과정까지의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석자료를 정교화하였다.

개념을 근거로 분석하여 얻은 범주, 상습범죄인이 출소 후 살아가는 과정의 패러다임 모형, 상습범죄인의 출소 후 삶 과정, 핵심범주, 상습범죄인의 출소 후 생활 유형 등을 토대로 이론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계속된 분석 과정에서 상습범죄인 관련 공무원과의 논의와 문헌을 참고하여 분석 자료를 정교화하면서 이들 이론을 일반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만족하였다.

V. 결 론

1. 요약

상습범죄인이 출소하여 살아가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범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습범죄인은 출소하여 자신의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을 안고 걸림돌과 도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출소한 상습범죄인이 살아가면서 몸부림침은 잘 적응하여 사는 것 외에 잔잔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검거되지 않고 대충 살아가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러 교정시설로 돌아가는 것도 포함한다.

둘째, 상습범죄인은 출소하여 홀로 살아가면서 기대, 인식, 대응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헛꿈꾸기, 갈등하기, 돌파구 찾기와 같은 전략을 구사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처음에는 막연하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잘 살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마치 겨울이 되면 일부러 가벼운 절도나 폭력을 저질러 ‘국비 장학생’으로 감옥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온 것이 사나이답게 사는 길인 양 으스대는 것(김진홍, 2001a:324)과 같이 위장된 모습을 보였다. 출소한 상습범죄인들은 현실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는 인식 단계를 거쳐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면서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파구를 찾아 나선다.

셋째, 출소한 상습범죄인이 살아가는 유형은 적응형, 대충 살기형, 재범형으로 드러났다. 적응형은 부정적 경험이 적은 반면 긍정적 경험이 많고 걸림돌이 약하고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안정된 생활과 보답하는 마음으로 적응하며 살아간다. 대충 살기형은 상호작용 전략으로서 약하고 지속적인 헛꿈꾸기와 갈등하기를, 약하고 일시적인 돌파구 찾기를 펼치며 살아간다. 이 유형은 법을 잘 지키며 성실하게 살지 않고 적당히 법을 어기되 범망에 걸려들지 않고 적당주의로 대충 살아간다. 재범형은 부정적 경험을 많이 했으나 긍정적 경험은 적게 했고 걸림돌은 심한 반면 도움은 일시적으로 받는다. 강하고 지속적으로 헛꿈꾸기와 갈등하기를 전략으로 구사하고 돌파구 찾기를 약하고 일시적으로 펼치나 끝내 체념하며 범죄에 빠진다.

넷째, 상습범죄인은 출소하여 개인 수준에서 암담함, 조급함, 해방감,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조직 수준에서 안정된 거점을 마련하고 후원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 했는가 하면 끼리끼리 어울리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회 수준에서는 사회의 부정의와 냉대 속에서 차별받으며 살아간다.

다섯째, 재범형에 속하는 상습범죄인은 형식적으로 가출소 심사에 응해 출소하였고, 특히 이들은 어려서부터 열악한 가정환경과 잦은 비행에 연루되었고, 사회로부터 냉대와 낙인을 심하게 받고, 연고가 없고, 범죄 습성과 부정적 사고가 강하고, 지지자와 생활 터전을 위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재범형 상습범죄인은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으로 다시 범죄를 행한다.

2. 함의

위에서 요약한 연구 결과가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 품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한 상습범죄인은 자신의 상황을 비롯하여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재범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중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을 때 삶의 한 방편으로 다시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출소한 상습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합당한 제도나 이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출소한 상습범죄인의 재활에 정부가 제도적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출소한 상습범죄인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략을 펼친다는 사실은 이들의 정상적인 재활을 위해 단계별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상습범죄인은 출소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출소한 상습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서비스는 이들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서비스가 유형별로

개발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넷째, 출소한 상습범죄인의 생활은 개인, 조직, 사회 수준에서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들을 위한 효과·효율적인 재활 프로그램에서 상습범죄인의 개인, 이들이 접하는 상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3. 제언

출소한 상습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정책과 적절한 개입 방안과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한 상습범죄인 중 마땅한 처치가 없는 이들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출소한 일부 상습범죄인이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생활관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민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출소한 상습범죄인을 위한 민간시설은 미인가 상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사업의 공공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출소한 상습범죄인 중 주거가 불분명한 이들을 위해 민간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들 시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출소한 상습범죄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출소한 상습범죄인의 개인적 특성과 이들이 처한 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여러 형태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출소한 상습범죄인을 위한 갱생보호공단의 시설이나 민간시설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출소한 상습범죄인들은 물질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사람이 한 때 회개하고 새로 출발했어도 자신의 체질이나 기본 성품이 완전히 바뀌기는 실로 어렵다는 점(김진홍, 2001b:221)을 고려하고, 70-80대로 구성된 '할아버지 소매치기단'이 활동하는 사례(한겨레, 2003년 9월 10일자)를 볼 때 상습범죄인의 영적 치유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출소한 상습범죄인의 온전한 재활을 위해 이 연구에 이어 이들이 출소하기 전 교정시설에서의 삶을 알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특히 출소한 범죄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장은명 역, 2003:96)고 할 때 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히 개발·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습범죄인의 교정시설 내 생활에 관한 파악은 더욱 절실하다.

넷째, 교정시설에 있는 상습범죄인이 대거 출소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학계나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안에서 상습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03. 《경찰백서》.
- 김미연. 2003. "HIV/AIDS 감염인의 삶의 과정: 근거이론 연구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중정. 1998.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홍. 2001a. 《황무지가 장미꽃같이1》. 서울 : 한길사.
- 김진홍. 2001b. 《황무지가 장미꽃같이2》. 서울 : 한길사.
- 김준미. 2001. "제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의 대처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동서문화. 1999. 《PASCAL 세계대백과사전》.
- 법무부 교정국. 2003. "출소자를 위한 민간 시설 현황".
- 법무연수원. 2001. 《범죄백서》.
- 송문호. 2001. "상습범 및 누범의 대책에 대한 문제점". 형사법연구 .
- 양춘 외. 1999. 《사회학개론》. 서울 : 민영사.
- 이동우. 2000. 《나는 청송의 TWO 빠빠용이었다》. 서울 : 엘덴.
- 이상현. 2000. "상습범죄자의 심리에 고나한 소고".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제9호.
- 이형국. 1994. "상습범과 그 대책에 관한 소고". 교정연구 . 제4호.
- 장은명 역. 2003. 《교도소 관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 서울 : 주한 영국대사관.
- 조기룡. 1999. "재통합모델에 기초한 교정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지광준. 2001. 《범죄와 청소년 비행》. 서울 : 케이앤비.
- 최옥채. 2003. 《교정복지론》. 서울 : 양서원.
- 황대권. 2003. 《야생초 편지》. 서울 : 도솔.
- 儲槐植. 1993. "中國의 累犯者와 常習犯의 矯正敎化方案". 이백철 역. 교정연구 . 제3호.
- Athanson, Stephen. 1997. "The Impact of Juvenile Background on Adult Recidivism: Origins of the Chronic Offender". A thesis of Master's of Science degree. Niagara University.
- DeLisi, Matt. 2000. "1000 Criminal Careers: Explaining Habitual Criminal Offending". A thesis of Doctor of Philosophy degree. The University of Colorado.
- Maruna, Shadd. 2001. *Making Good: How Ex-Convicts Reform and Rebuild their Liv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urner, Jonathan H. 2002. 《현대 사회학 이론》. 정태환 외 공역. 서울 : 나남출판.
- 한겨레. "장발장의 편지". 2003년 6월 17일자

한겨레. “보호감호 이젠 풀자”. 2003년 8월 12-19일자.

한겨레. “보호감호 수감자 절반 줄인다”. 2003년 9월 15일자.

한겨레. “소매치기 경력 50년 할아버지 셋 붙잡혀”. 2003년 9월 10일자.

한겨레. “야, 사회복지법 올안 폐지”. 2003년 9월 18일자.